

# 문화방송 노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발행일 : 2023. 02. 21

272호

www.mbcunion.or.kr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강연섭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1~6 FAX 02-782-0135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 15대 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이호찬 · 윤태호 출마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15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 지부 이호찬 조합원(사진 왼쪽)과 대구지부 윤태호 조합원(사진 오른쪽)이 본부장과 수석 부본부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자는 오늘(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3월 13일(월)까지 서울과 지역의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화방송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7일(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며, 3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사흘간에 걸쳐 모바일로 본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표는 3월 16일(목) 18시 투표 종료 직후 실시되며,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15대 본부장 · 수석 부분부장 출마의 변



## 이호찬 본부장 후보

- 2003년 MBC 기자 입사
- 문화방송본부 보도민실위간사
- 뉴스를 정치팀

## 혼돈의 시기, '원칙'에 충실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MBC의 대내외 상황을 한 치 앞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장 교체기, MBC의 미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공영방송 MBC'의 존립마저 뒤흔들려는 집권 세력의 마수(魔手)가 더 거칠게 뻗쳐 올 것입니다. 이 정부가 내세우던 '공정과 상식', '자유'라는 슬로건은 '거짓 구호'였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위원장에 출마하는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조합의 판단과 선택에 무게감이 실릴 때임을 압니다.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실현, 그리고 문화방송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과 민주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운영규약 4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에 충실하겠습니다. 조합원 권익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MBC의 독립과 공정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되, 싸워야 할 때 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7층 보도국을 출입할 때마다 故 이용마 기자의 사진 액자에 담긴 이 문구를 마주칩니다. '세상은 바뀌는가?', 지난 몇 년간의 제 화두였습니다. 변화가 더디다는 생각에 좌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디더라도 세상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할 때 가장 행복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의 역할 또한, 이 시기 조금이나마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에 조합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늘 새겨듣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 윤태호 수석부분부장 후보

- 2000년 대구MBC 기자 입사
- 대구지부 부지부장
- 대구지부장

##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연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나에게 노조는 어떤 의미일까? 저 스스로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끄럽게도 답은 한결같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지역 MBC 노조 지부장들이 저를 MBC 본부 수석 부분부장 후보로 합의 추천해 준 날 역시 저는 이렇게 수락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는 옷을 왜 입고 있는 것일까? 마냥 옷 입는 것을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이왕 입었으니 벗기 귀찮아서 더 입고 있는 것일까? 수석 자리를 수락한 이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며 고민했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맞지 않다면 내 몸집을 줄여서든 늘려서든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것을. 그게 저에게 수석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게 허락해 준 17개 지역 MBC 조합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고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후회에 지금도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고민, 걱정 벗어던지고 선공후사의 단단한 마음을 그 자리에 채우고자 합니다. 우선 현 정권의 언론탄압, 특히 MBC 탄압을 막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 후배들이 정치 권력에 맞서 쟁취한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 생각하며 뚝뚝뚝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부와 지부의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일 겁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내재해 있는 불협화음을 하나씩 하나씩 화음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구습이 있다면 고치고 바로잡아 투쟁의 동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단일노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큰 쓰나미가 몰려올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 MBC 820여 조합원들이 제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지역 MBC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응원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MBC를 굴복시키려는 그 어떤 위기도 의연히 맞서 이겨 낸 MBC 노동조합의 저력이 여전히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한 번 더 보여주는 15기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연하게 행동하겠습니다.

# 제 15대 서울지부 지부장·부문 부지부장 후보

## 서울지부 지부장 후보



### 이호찬 조합원

- 2003년 입사
- 문화방송본부 보도민실위간사
- 뉴스를 정치팀

## 보도부문 부지부장 후보



### 권혁용 조합원

- 2002년 입사
- 뉴스영상국 뉴스영상2팀

## 기술부문 부지부장 후보



### 노민철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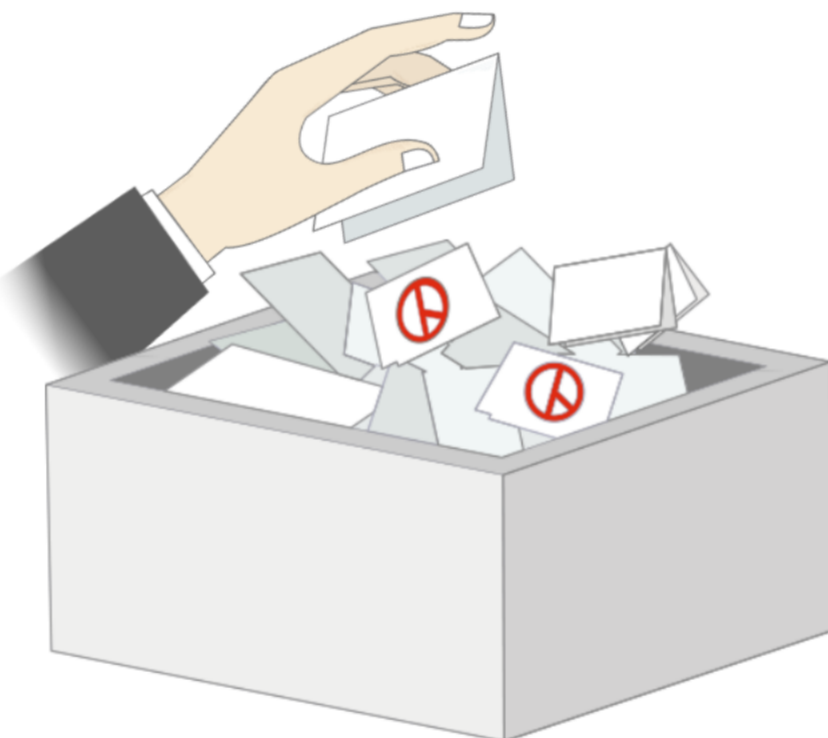
- 2004년 입사
- 기술인프라국 미디어IT솔루션팀

## 경영부문 부지부장 후보



### 정익휘 조합원

- 2004년 입사
- 미디어사업국 글로벌사업팀



## 영상디자인부문 부지부장 후보



### 김형근 조합원

- 2004년 입사
- 영상디자인국 영상센터 영상1팀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서울지부 임원 선거 안내

2023년 3월 14일(화)부터 시작되는 문화방송본부·서울지부 임원 선거는 모바일과 이메일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지부 조합원의 경우 ①본부 임원 ②서울지부장 ③서울지부 부지부장 선거 등 총 3번 투표하고, 그 외 지역지부 조합원들은 본부 임원 선거만 투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 출 대 상

본부장·수석 부본부장  
서울 지부장·부지부장

선 거 운 동

2월 21일(화) ~ 3월 13일(월)

투 표

3월 14일(화) 오전 9시 ~  
3월 16일(목) 오후 6시

투 표 방 법

모바일 투표(안내문자)

- 국내 : 휴대전화로 링크 수신
- 해외 : 등록 이메일로 링크 수신

개 표 · 당선 공고

투표 종료 직후

# 2022년 4분기 -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상

## 서울 조직적 전세 사기 '빌라왕' 연속보도 - 서울지부 박진준·홍신영 조합원

## 홍신영 조합원 / 서울 보도



▷ 위 조합원들은 조직적 전세 사기의 구조를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보여줬으며, 범행에 사용된 주택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그 수법도 상세히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 또한 제시했습니다. 단독 및 연속 보도로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을 심각한 '사태'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 관련 수사와 입법에도 힘이 실렸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수백 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놓으라고 세입자를 협박한다는 제보, 악덕 집주인의 횡포로 인한 '하나의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취재가 작년 7월 <461채 빌라와 1,275채 빌라 황제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의 제목으로 첫 보도 됐습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악성 임대인들은 임대 사업을 하다 경기가 안 좋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게 무슨 잘못이냐며, 어떻게 이게 사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맞닥뜨린 전세 사기의 실태는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가 벌어지고 있었고 더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단기간에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사람들은 누굴까, 이들이 산 집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빌라는 어떻게 해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됐을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무얼 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증금이 묶인 전셋집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사회를 불신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냥 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게 전세 사기"라는 생각만큼은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전세 사기와 관련해 20편이 넘는 단독 보도와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책들과 법이 만들어진 것에 안도와 보람도 느꼈습니다. 알아서 '척척' 자기 뚝을, 때로는 그 이상을 해준 박진준 기자와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경제팀 식구들에게 수상을 핑계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취재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보도, 올해도 계속하겠습니다.

## 울산 특집 보도 '지역 대개조' 4부작 - 울산지부 유희정·이영훈·김보은 조합원

## 유희정 조합원 / 울산 보도



▷ 위 조합원들은 '지역 소멸'의 원인과 대안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수도권·경북·경남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으로 지역 소멸의 근본 이유를 짚었으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중인 영국과 일본을 현지 취재해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회 정책토론회 등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경상북도 내륙에 영양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양군의 면적은 815.8km<sup>2</sup>로 서울시의 전체 면적보다 34% 이상 넓습니다. 이런 영양군에 왕복 4차로 도로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영양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국도 31호선 조차 왕복 2차로, 편도 차로 1개뿐입니다. 경운기라도 한 대 등장하는 날에는 도로 전체가 마비됩니다. 선형도 구불구불합니다. 영양군 주민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을 가려 해도, 국도를 타고 넘느라 1시간 20분을 달려가야 의사 얼굴을 봅니다. 이런 이유로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영양군도, 경상북도도 매년 국도를 좀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과적으로 수도권에만 유리한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편하려는 노력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했던 많은 기반시설 조성 사업들이 이런 개편을 통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비수도권의 '시골'들이 영양군의 사례처럼 핵심 도로망조차 열악하거나,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가뭄이면 물이 끊기기 일쑤고, 병원 다니는 데 하루를 다 써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시골'이라는 이유로, 그런 곳에 국가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이유로 삶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마저 누리지 못하는 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 전에, 같은 국민인데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조차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견제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도로 개설 사업은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의 불편과 고통을 푸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수가 대도시의 동네 의원만도 못한 적지투성이 병원이더라도, 지역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마지노선이 되어 줍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지켜줄 핵심적인 기반시설에는 '개발'이나 '경제'를 넘는 다른 기준, '평등'이 도입되어야 할 때입니다.

# 2022년 4분기 - 민실위 선정 좋은 프로그램상

**서울** 2022 카타르월드컵 중계방송  
- 서울지부 김봉근 조합원



**김봉근 조합원 / 서울 스포츠**

**수상소감** 모두가 잘 알겠지만, 축구는 11명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때 좋은 경기력을 발휘합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중계방송>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국 만의 노력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도움과 전직원의 뜨거운 관심이 모여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 깊이 새기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MBC 스포츠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조합원은 스포츠 조합원들과 함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가장 뜨겁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시간을 넘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의 호평과 전 경기 시청률 1위 기록을 이끌어낸 모습은 국가대표팀이 전해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재연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의 의지를 되살려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에 이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원주** 바람 되어, 너와  
- 원주지부 조재용 조합원



**조재용 조합원 / 원주 편제**

**수상소감** 파일럿을 구하지 못해 군 장병들이 일일 도우미로 나서고, 국가 대표조차 마음껏 훈련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마주한 탠덤 사이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건 쉽 없이 돌아가는 페달에 실린 선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서 부단히 나아가는 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세상을 향한 담대한 첫걸음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그리고 장애를 넘어 함께 페달을 굴려준 김정빈, 조선 두 주인공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 위 조합원은 로드 다큐멘터리 <바람 되어, 너와>를 제작하여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애인 올림픽 스포츠 종목 '탠덤사이클'을 조명했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 선수가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 사는 사회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